

‘오월 열사’ 윤상원 도서관 만든다

광산구 기념사업 연구용역 발주 본격 추진

2030년까지 기념관 조성 등 콘텐츠 브랜드화

‘시대의 등불’ 윤상원<사진> 열사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전남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윤상원은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민주투쟁위원회 대변인과 광주시민의 눈과 이어졌던 ‘투사회보’의 발행인으로 활동하다가 그해 5월27일 옛 전남도청 본관 2층 사무실에서 계엄군의 총에 맞아 서른살의 나이에 짧은 생을 마감했다. 윤상원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정신을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하다. 광주시 광산구가 신흥동 천동마을 출신인 윤상원을 기념하기 위해 도서관 건립 등 기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0일 광산구에 따르면 최근 시비 7000여만원을 들여 ‘5·18 민주주의 도서관 건

립 등 2030 윤상원 열사 기념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오는 203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50주기를 앞두고 광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윤상원 기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5년 동안 연차별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광산구는 지난해 ‘윤상원 열사 기념사업 추진 TF’를 만들어 관련 내용 등을 논의해왔다.

앞서 광산구는 민형배 정장의 민선 6기 공약 중 하나인 윤상원 열사 생가 주변 5·18 민주주의 작은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다가 보다 체계적으로 윤상원을 브랜드화하기 위해 사업 방향을 선회했다.

민 정장은 윤상원 관련 기록과 함께 1980년대 한국 민주주의 관련 자료를 전



시·홍보하고, 학습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을 조성할 예정이었다.

이번 연구용역의 핵심은 ▲윤상원 기념관으로의 5·18 민주주의 도서관 건립 사업 타당성 분석 ▲윤상원 정체성 및 브랜드 ▲윤상원 기념공간 조성 등이다.

광산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윤상원 생가, 윤상원 열사가 숨진 곳이자 5·18광주

민주화운동의 최후 격전지인 옛 전남도청, 윤상원이 몸 담았던 들불야학과 광천동 성당, 윤상원의 거처이자 들불야학의 사랑방 역할을 했던 광천동 시민아파트 등 윤상원의 흔적들을 다시 살피게 된다. 또 광주시가 추진 중인 5·18 사적지 조성 사업,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광산구는 이번 연구용역과는 별도로 올해 윤상원 생가 인근 330㎡(약 100평)의 땅을 매입해 방문객 센터, 화장실 등 편의 시설 조성 사업을 진행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윤상원 열사는 고봉 기대승, 용아 박용철, 국장 임방울과 함께 광산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며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면 도서관, 기념관, 오월길 사업, 아트상품과 도서 제작, 문화 공연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텅 빈 광주전남 혈액냉장고 10일 오후 광주시 남구 송암동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내 혈액냉장고의 혈액보관 선반이 텅 비어있다. 이날 현재 혈액원이 보유하고 있는 혈액의 양은 전체 2.7일분뿐이다. 특히 A형은 1.1일분, O형은 1.9일분뿐이고, AB형은 3.4일분, B형은 5.8일분 남았다. 이는 혈액원의 기준보유량 5일분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학생 80% “9시 등교제로 수면시간 증가”

광주교육청 설문...56% “아침식사 한다”

광주교육청의 ‘9시 등교제’가 수면시간 증가 등 학생 생활 환경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학교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8시30분 이전 강제 등교를 금지하는 적정 등교시간 조정 정책을 시행했다.

시교육청은 초·중·고교 34곳의 학생 2391명과 학부모 2960명, 교사 1328명을

대상으로 ‘적정 등교시간 조정 정책’에 따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 학생의 80.5%가 1일 평균 수면 시간이 늘어났다고 답했다.

조사 결과, 20분 미만이지만 수면시간이 기존보다 늘었다는 학생이 50.5%로 가장 많았다. 20~40분(22.9%), 40~60분(4.0%) 등으로 조사됐고 수면 시간이 60분 이상(3.1%) 늘어났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등교 시간 조정으로 ‘주 5일 이상 아침 식사를 한다’는 학생도 56.3%로 집계돼 등교 시간 조정 전(49.8%)보다 늘었다. ‘등교시간 조정’ 정책에 대한 만족도도 학생이 61.7%로 가장 높았고 학부모 55.7%, 교사 52.6% 등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응답자 기입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학생 ±1.99%포인트, 학부모 ±1.79%포인트, 교사 ±2.55%포인트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불법 정치자금 박기춘 의원

1심서 징역 1년4개월 ‘실형’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현금 등을 분양 대행업체 대표에게서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박기춘(60) 의원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지난 8일 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4개월과 추징금 2억7868만원을 선고했다. 증거는 교차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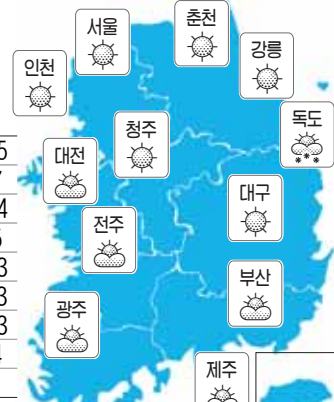
해돋이 07:41 해질 08:12
해짐 17:39 달짐 19:05

감기 조심하세요

구름많고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구름많음	-1/5	보성	구름많음	-3/5
목포	구름많음	-1/4	순천	구름많음	0/7
여수	구름많음	1/6	영광	구름많음	-3/4
나주	구름많음	-3/5	진도	구름많음	0/5
완도	구름많음	0/5	전주	구름많음	-3/3
구례	구름많음	-3/5	군산	구름많음	-4/3
강진	구름많음	-1/5	남원	구름많음	-3/3
해남	구름많음	-2/5	속산도	구름많음	3/4
장성	구름많음	-3/4			



바다 날씨

지역	방향	오전 파고(m)		오후 파고(m)		
		북~북동	동~남동	북서~북	서~남서	
서해남부	앞바다	0.5~1.5	1.0~2.0	북서~북	1.0~2.0	
	면바다	1.0~2.5	1.5~3.0	북서~북	1.5~3.0	
남해서부	앞바다	0.5~1.5	0.5~1.5	북서~북	0.5~1.5	
	면바다(동)	1.0~2.0	1.0~2.0	북서~북	1.0~2.0	
면바다(서)	북서~북	1.0~2.0	북서~북	1.0~2.0	북서~북	1.0~2.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2:37	08:00	15:21	20:37
여수	밀물		썰물	
	10:10	03:30	22:13	16:13

주간 날씨

12(화)	13(수)	14(목)	15(금)	16(토)	17(일)	18(월)
-3/3	-3/3	-2/5	-3/3	-4/4	-3/3	-3/3

지난해 전남 교통사고 사망자 줄어

도 TF팀 예방 대책 성과...전년보다 14명 ↓

2015년 전남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3% 줄었다. 특히 해마다 늘어나던 노인 사망자 수 감소율이 5.7%나 돼 교통 문화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방경찰청의 교통사고 통계 분석 결과 2015년 전남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모두 413명으로 전년(427명)보다 14명이 줄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 수는 181명으로 전년(192명)보다 11명이 감소했다.

전남도는 전남지방경찰청, 전라남도 교육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교통안전 TF팀을 운영해 추진한 다양한 교통사고 예방 대책에 따른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교통안전 TF팀은 노인 대상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야간 보행 시 식별이 잘 되는 야광반사지(일명 반딧불)를 신발에 직접 부착해주시도 했다. 또 교통자를 위한 ‘교통안전 안내서’를 배포하고, 노인 운전차량 뒷유리에 ‘실버마크’를 부착해 배려운전을 유도하는 등 노인 교통사고 줄이기 시책을 꾸준히 펼쳐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첫 독감바이러스 검출

손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

전남에서 이번 겨울들어 첫 독감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전남에서 이번 겨울들어 첫 독감바이러스가 검출됐다.

10일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7일 전남지역 한 병원에서 이번 겨울 첫 독감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이번에 검출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H1N1)pdm09형으로 환자는 기침과 인후통, 두통 증상을 보였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9월 둘째 주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H3N2)형이 검출됐다.

전도영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미생물과장은 “독감은 급성 호흡기질환으로 환자의 기침이나 재채기 때 발생하는 비말 등을 통해 전파되므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가급적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소촌동 모아드림아파트 | 온세계아파트 특별분양

교육, 교통, 생활편의까지
광주를 더 크게 누립니다!

41㎡ 53㎡ 80㎡ 104㎡ 107㎡

소촌동 모아드림 아파트 온세계 아파트

- KTX 5분거리
- 광주시청 10분거리
- 나주혁신도시 20분거리
- 무안공항 원할
- 교육환경 우수 지역
어룡초, 중앙초, 정광중 · 고등학교, 광주여대, 호남대 근거리

가격은 500만원대

풍부한 임대수요

우수한 교육환경

선착순 동, 호수지정

문의

062 383-6400